

## 소타액선종양의 치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태 경 · 지용배 · 박인범 · 서인석 · 이형석

**목 적** : 소타액선은 부비동을 포함한 상부호흡소화기관에 약 600~1,000개 가량 분포한다. 소타액선 종양은 조직학적 종류 및 위치가 다양한 만큼 임상적 양상도 다양하다. 이에 저자들은 소타액선 종양을 진단된 환자들의 임상적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 1996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한양대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를 방문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소타액선 종양으로 진단받은 52명의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원발부위, 병리조직학적 분류, 임상증상, 치료, 재발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 전체 52례중 양성 종양이 24(46%)례, 악성종양이 28례(54%)였다. 양성종양의 대부분(20/24)이 다형선종이었으며, 악성종양은 선양낭성암종(15/28), 선암종(6/28), 점액표피암종(4/28)순서를 보였다. 양성종양은 남자가 8례, 여자가 16례였으며, 연령은 34~73(평균 55.7)세였고, 악성종양은 남자 10례, 여자 18례였으며, 연령은 17~78(평균 55.8)세였다. 원발부위는 양성종양은 경구개(13/22), 연구개(4/22)가 대부분이었고, 악성종양은 비강 및 부비동

(9/28), 경구개(6/28)가 가장 많았고, 구강저, 협부등의 순서를 보였다. 주증상은 무통성 종괴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비폐색, 인후부불편감등이 있었다. 악성종양의 AJCC 병기는 I기 1례, II기 6례, III기 5례, IV기 16례였다. 치료는 양성종양 24례 모두 절제술만 시행하였고, 악성종양은 28례중 24례에서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2례는 술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고, 이중 3례는 방사선과 화학요법을 모두 병행하였다. 방사선치료만, 화학요법만 그리고 방사선치료 및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경우가 각 1례씩 있었으며, 1례는 진단후 치료를 거부하였다. 양성종양의 재발은 없었고, 악성종양으로 근치적 치료를 받은 24례중 5례가 원발부위, 이중 3례가 경부임파선과 함께, 1례에서 경부임파선에만 재발하였다. 5례에서 폐로의 원격전이가 있었다.

**결 론** : 소타액선 종양은 악성이 양성보다 다소 많으며, 여자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이며,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높은 재발률과 낮은 생존률을 보였다. 세심한 진단과정을 통해 조기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